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음 5월 9일) 제23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 농생명 핵심

송하진 도지사, 하림 등  
지역 대표 식품기업 방문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  
산단 입주기업 등 찾아  
식품산업 발전 방안 논의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도정 핵심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대표 식품기업들과의 밀착평정을 펼쳤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관 등은 이날 첫 행보로 사육을 신축 이전(익산 마동)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만나 전북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국 하림그룹회장, 박길연 (주)하림 대표, 이강수 (주)하림식품 대표가 참석했고, 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 차주하 투자금융과장 등 관계관이 동행했다. (관련사진 2면)

최근 하림은 전북지역에 2024년까지 7100여원을 투자해 기존 익산 망성면의 최첨단 닭고기 종합 가공센터와 함열읍의 가공식품단지 푸드콤플렉스, 그리고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는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을 구축중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1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물론, 전북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지역에 대규모 투자결정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하림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순수본(18.4월), 풀무원(19.5월), 프롬바이오(19.5월) 등 앵커기업들이 준공·본격 가동하고 있어 대기업인 하림이 공사에 착공한다면 클러스터 활성화는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협력기업의 투

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림의 조기착공을 요청했다.

김홍국 회장은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이 본격가동이 되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공급과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 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식품단지는 하림그룹 최우선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지사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면담에 이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준공을 마치고 현재 27개 입주기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원센터 운태진 이사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권키펠너 신주연 대표, 유니온테크 한기정 대표, 순수본 김용태 대표, 프롬바이오 용종우 공장장이 참석했다.

입주기업협의회 신주연 부회장은 700여명의 근로자가 산단 내에 근무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편의점·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건의했다.

프롬바이오 용종우 공장장은 전북지역 내 우수한 항토자원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생산능력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송 지사는 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순수본을 방문하여 전북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송 지사는 "식품산업의 여러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소통하고 상생협력하는 명품 산업단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침성 기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 최영인씨, 판소리 명창부 '장원'

홍보가 중 '홍보' 대목 열창 명창 변열 올라  
올해도 청중평가단 제도 이어져 공정성 확보

국내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최영인씨(45)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최영인씨는 10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 열린 본선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홍보가' 중 '홍보' 대목을 열창해 장원을 차지하며 명창의 변열에 올랐다.

올해 대회에서는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42명이 경연에 참여해 열린 경연을 펼쳐 △국무총리상(농약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기약부, 무용부) △국방부장관상(공도부) △전라북도지사상(판소리 일반부) △전주시장상(민요부, 판소리 일반부), 고법신인부, 무용신인부, 민요신인부) △문화방송사장상(가야금병창부, 시조부) 등 부문별 시상도 이뤄졌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서도 청중평가단 제도가 이어져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청중평가단 100명 모집에 182명이 지원하는 등 일반인의 참여도 뜨거웠다.

아울러, 판소리 전승과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신설된 신인부 경연에 △고법신인부(16명) △무용신인부(14명) △민요신인부(45명) 등 일반 시민·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냈다. 앞서 개막공연에서는, 국악계 명



10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의 영예를 차지한 최영인씨가 장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인·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이 함께 2시간 30분간 공연을 펼쳤으며 4개의 색선으로 이루어진 총

25개 프로그램, 225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은 국악인들의 경연대회가 아닌 시민·관

광객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전주의 낮과 밤을 국악의 향기로 물들였다. /송호철 기자

## “이사회 중심으로 완산학원 정상화를”

도교육청, 이사 승인 취소 진행 중... 인적 구성원 정리키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가선 안돼 학업 정진토록 최선”  
김승환 교육감, “학업·운동 병행 주중 대회 폐지 검토”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설립자 일가의 횡령과 채용 비리로 얼룩진 전주 완산학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산학원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시이사 파견 등 이사회를 중심으로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사 승인 취

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주 완산학원 이사 8명(감사 2명 제외) 중 6명의 임기가 모두 끝났다. 도교육청은 현재 비리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이사직 연임을 보류한 상태다. 임기는 3년이다. 임시이사 선임 결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친다.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청, 학교 및 법인 이해 관

계인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진행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완산학원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승진, 임용 등에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적 구성원을 정리하고, 또 학원 정상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시이사 파견이 없으면 임기가 끝난 이사가 자동으로 이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완산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안

정적인 환경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소년체전에 대해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대회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현직 교사 A(57)씨와 B(61)씨를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천만~1억원을 건넸고, 이를 합한 5억3천여만원이 학교 측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